

'색인'의 중요성

鄭晋錫

한국의국어대 교수 · 언론학

책은 대개 세가지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본문을 중심으로 앞에는 당연히 目次가 있고, 말미에는 索引이 붙어야 책의 구성요소를 제대로 갖추게 된다. 이 가운데 목차와 본문은 당연히 책의 구성요소로 보지만, 색인에 대해서는 어쩐지 소홀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소설이나 수필처럼 색인이 필요없는 책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학술적인 내용의 책 또는 연감, 편람, 인명록 따위 당연히 색인이 붙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책도 색인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영어단어 인덱스(Index)는 원래 라틴어로서 '어떤 사람 또는 물건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뜻을 지녔었는데, 16세기에 영어로 정착되면서 학술적인 용어가 되었다. 그리고 이 말은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책의 내용을 알파벳 또는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여 찾기 쉽도록 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말로 '문헌목록'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문헌을 내용별로 정리하여 찾기 쉽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다. 말콤 머거리지(Malcolm Muggeridge)라는 사람은 "색인이 없는 책은 마치 驛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열차시간표와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기차의 출발과 도착시간은 있지만 어느 역에서 몇시에 출발하여 어느 역에 몇시까지 도착하고 또 출발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나 같다는 말이다.

서양의 책은 그래서 인덱스가 충실하다. 과학적·체계적으로 문헌목록을 작성하는 방법도 오랜 기간에 걸쳐 발달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양식이 확립되어 있고, 이것이 학술논문이나 서적의 제작에 통용되고 있다. 영국의 유명한 「더 타임스」 신문은 2백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는데, 꼼꼼한 인덱스가 발행되어 대학도서관의 참고도서 열람실이나 출입이 빈번한 곳의 큰 서가에 그득히 꽂혀 있다. 2백년 역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생생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색인작업의 역사가 길고 과학화된 영국에서는 이미 1877년에 '색인협회'(The Index Society: 현재는 1957년에 창설된 The Society of Indexers)가 창설되었고, 미국에는 American Society of Indexers(1968)가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에도 협회가 설립되어 있다. 이들 협회는 모두가 출판업자 또는 도서관 등과 연결되어 있다.

학문의 다양화와 출판물의 양적 증가로 인해 색인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출판계와 학계는 색인작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가 있다. 첫째는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잔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걸리는 색인작업에 소홀한 탓일 것이고, 두번째 이유로는 색인작업에 대한 출판계와 학계의 인식부족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학문의 발전이란 어느 한사람 천재의 공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업적이 축적되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실컷 해놓은 연구를 정보부족으로 몰랐기 때문에 또다른 사람이 노력을 들여 다시 한다면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낭비다.

수십년 분량의 신문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찾아내고 싶을 때 색인이 있다면 얼마나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한가. 그러기 위해서는 색인에 관한 전문인이 양성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출판계와 학계가 색인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색인이나 문헌목록을 만드는 사람들을 대접할 줄 아는 풍토가 아쉽다. 요즘은 컴퓨터가 재래식 색인작업의 번거로움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은 역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표지인물	2	불교미술 연구의 개척자적 '터잡기'
특별기고	3	著述을 통해 본 斗溪史學/李基白
초점	4	'위대한 책의 시대 창출' 선언
출판과 문화	6	확대되는 「日本出版文化博物館」 구상
특별기획	8	증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④ -해방 직후의 大邱출판계 ① 玄峯社창립 전후
화제의 주변	10	'아픈過去'로부터의 자유찾기/김형국 -「기억의 안개숲」의 韓水山을 말한다
문학사평	12	金八峰文學과 현실의 의미/申東旭
	13	蔡萬植의 문학과 삶/이주형
서평	14	張仁淑 「著作權法原論」-李基秀 車柱環 「中國詩論」-李炳漢
	15	조르주 바타이유 「에로티즘」-黃鉉産 하웃즈 바르트 「자본주의와 진보사상」-朴炳鎬
	16	김윤식 「박영희 연구」-金澤東 최수철 「고래 뱃속에서」-권성우
	17	홍윤숙 「짧은 밤에 긴 詩를」-朴堤千 李雪舟 「달맞이꽃」-강우식
나의 학문편력	18	대학도서관에서 지새운 젊은 나날들/金學俊 -나의 해외유학 및 연구생활 回想記 ①
출판화제	21	「독립운동사 교양총서」 시리즈
세계의 추천도서	22	東歐와 아프리카文學에의 접근/李重漢
컬러화보	24	湖巖 갤러리館長 李宗碩씨의 書架
지금 독서중	26	노아 벤사의 「뺑장수 아금」-교사 丘得煥씨 카미유 클로델 傳記 「어떤 여자」-번역가 金明禧씨
	27	유순하 장편소설 「생성」-아트 디렉터 千好信씨 스즈끼 다이세쯔의 「禪공부」-신문기자 金民敬씨
세계의 출판	28	전통이론에 反旗든 전쟁연구서들 外
저작구상	11	「西洋哲學史를 어떻게 볼 것인가」/朴東煥
화제의 책	21	'도전익식' 주제로 한 탐험의 역사
	23	사진으로 엮은 聖書의 세계
독자서평	30	김상현/남충진
	31	새로 나온 詩集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화제의 책/자료집
	42	신간목록
	46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프리즘	48	'일과 삶'의 철학/김신혁
	48	독서퀴즈/정기구독 안내